

함께한 50년 여러분의 KBS

KBS 공사 창립 50주년이 되는 2023년을 맞아 '공영방송 50주년' 슬로건과 1월 1일자로 입사한 신입사원 115명의 얼굴로 디자인했다.

‘언론수용자 조사’ 신뢰도·영향력 압도적 1위… 2019년부터 4년 연속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에서 KBS가 신뢰도와 영향력 두 부문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KBS는 이 조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부문 1위 자리를 2019년부터 4년 연속 이어가게 됐다.

2021년 조사 때 보다 신뢰도·영향력 큰 폭 상승

언론재단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에서 KBS는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항목에서 28.1%의 선택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이 수치는 2021년 조사 결과인 23.0%보다 5.1%p 상승한 것이다. 2위는 MBC(16.6%), 3위는 YTN(9.6%), 4위는 네이버(9.2%), 5위는 JTBC(6.9%)였다.

KBS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항목에서도 33.6%의 응답을 얻어 2위 MBC의 15.1%를 2배 이상의 차이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이 수치 역시 2021년의 27.5%에 비해 6.1%p나 오른 것이다. 3위는 네이버(13.1%), 4위는 YTN(8.6%), 5위는 JTBC(5.5%)였다.

이번 조사는 언론재단이 맨틀코리아(칸타퍼블릭)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일반 가구 및 가구 내 만 나이 19살 이상 가구원 전원 5만 8천 936명(3만 138가구)을 대상으로 올해 7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가구 방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시행했다. 표본오차는 가구 기준으로 95% 신뢰수준에 $\pm 0.56\%$ p, 개인 기준으로 95% 신뢰수준에 $\pm 0.40\%$ p다.

김의철 사장 신년사



공사창립 50주년 뜻깊은 한 해, 채용 정례화로 KBS 미래 준비

사랑하는 KBS 사우 여러분, 드디어 2023년 공사창립 50주년의 뜻깊은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뜻하는바 모두 성취하시고, 생기 넘치는 토끼처럼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입사원 115명을 이 자리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이분들은 나이와 학력, 지역과 성별, 그 어떤 차별도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증받은 우리 사회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부심을 갖고, KBS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 경영진은 앞으로도 매년 신입사원 채용을 정례화해 KBS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BS의 새로운 50년을 열게 될 신입사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와 기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뢰와 통합의 KBS, 새로운 100년 이끌 새로운 CI 공표

2023년 방송지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뢰로 여는 통합의 창 KBS>입니다. 여전히 KBS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는 바로 신뢰와 통합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마저도 양극화된 작금의 시기지만, KBS 뉴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진영논리의 거센 풍랑에 잠시 빛이 바랄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대한민국 신뢰의 중심으로 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이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통합의 공론장으로서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올해의 경영목표는 <공영방송 50년, 가장 신뢰받는 KBS>로 정했습니다. 초 불확실성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에 KBS는 공영미디어로서 상업 미디어와 차별화된 역할을 구현함과 동시에 한정된 자원 안에서 효율적인 공적 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KBS의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다양한 <50주년 기념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공영방송 창립 50년 만에 KBS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오는 3월에는 KBS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이끌 새로운 CI가 공개될 것입니다. 통합 미디어 브랜드를 상징하는 멋진 이미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송사 모임인 ABU(아시아 태평양방송연맹)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해,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공영미디어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공영방송 50년사> 제작과 <KBS를 빛낸 50인> 선정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50년간 국민의 삶 속에서 함께 해온 KBS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작업이 될 것입니다.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확고, 건전한 비판 수용으로 공정성 강화

임직원 여러분, 지금의 KBS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자부합니다. 취임 직후 심의실에 <부당 개입 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KBS 사장으로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보도·편성 제작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KBS의 방송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은 공고해졌고, 공영미디어로서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독립성과 자율성의 보장이 곧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제작진과 관리자의 소통과 토론으로 다양한 시각과 균형감 있는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정파적 유불리를 공정성 이슈로 포장하는 내외부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건전한 비판에는 귀를 기울이고 더욱 공정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더욱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수익 구조 다각화 · 과감한 투자,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난주 임금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까지 진행될 만큼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노동조합의 결단으로 해를 넘기지 않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양대 노조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8% 인상,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고 경영진으로서 임직원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

지난해 우리는 경쟁력 강화와 광고 판매 증대를 위해 각 분야에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뉴스와 드라마, 예능, 디지털까지 시청률과 광고 판매에 있어서 경쟁사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콘텐츠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경쟁력 하락의 근간에는 치열한 미디어 경쟁 시장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KBS의 빈약한 재정 구조가 있습니다.

KBS의 매출은 근 20년째 1조 5천억 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000원 하던 짜장면이 6000원이 되는 세월 동안 우리 KBS의 호주머니는 탄력을 잃었습니다. 수신료, 인상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신료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매출 규모를 높일 수 있도록 수익 다각화에 나서겠습니다. KBS미디어, KBSN, 몬스터유니온 등 콘텐츠사업 계열사의 총 매출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본사의 매출과 합하면 연 매출 2조 원의 미디어 그룹인 셈입니다. 특히 우리 계열사는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전문화된 기업으로 현재 미디어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와 함께 그룹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023년 콘텐츠 시장의 키워드는 오리지널 콘텐츠 강화, IP 지적재산권 확보, 글로벌 제작 투자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KBS도 드라마/예능에서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일일/주말드라마에 적절한 제작비를 투입해 명실상부 '연속극 강자'의 위상을 보여주겠습니다. 과감한 투자로 IP를 확보하고 글로벌 OTT를 해외 유통의 경로로 활용하겠습니다. 미니시리즈도 본사 드라마센터와 몬스터유니온의 결합력이 높아진 만큼 확실한 '원투펀치'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능도 트렌드를 선도할 킬러 콘텐츠 제작을 위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OTT 콘텐츠에 못지않은 제작비를 투입하겠습니다.

신속한 결정과 추진, 데이터 기반 경영, 그리고 조직문화 개혁

저는 취임식에서 3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신속한 결정과 추진, 데이터 기반 경영, 그리고 조직문화 개혁이 그것입니다. 지난 1년 '느린 결정이 틀린 결정보다 나쁘다'라는 마음으로 서둘러봤는데 스스로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물론,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KBS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일들을 단탄하게 다지며 차곡차곡 진행해왔습니다. 수많은 방송사가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를 둘러싼 법제도는 아직 미비한 수준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방송사이자 미디어로서의 역할과 업무 범위, 자원조성을 위한 두 개의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우리사회에 KBS가 기여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국회 내 수신료 결정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입법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을 움직이는 기본에는 사람, 돈, 정보가 있습니다. KBS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작동되는 원리를 바꿔야 합니다. 우선 '사람', 우리 직원들이 이제 직종을 넘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무 단위로 채용, 배치, 평가하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돈', 우리의 재원이 콘텐츠 중심으로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관리회계의 청사진을 지난 해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인력과 재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들이 올해 데이터 포털로 구현됩니다. TV, 라디오, 온라인, 국제방송 등 법률이 정한 공공서비스 별로 우리의 목표와 성과를 체계화하는 기틀이 올해 정립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KBS의 운영체계는 근본적으로 변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도 있습니다. '성과에 따른 충분한 보상'. 관건은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입니다. 현재의 부서 개인평가 시스템을 보면 마치 '과거의 시스템에 미래가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평균주의에 갇혀 성과가 높은 팀원에게 마음껏 점수를 줄 수 없는 시스템, 바뀌어가겠습니다. 추가적인 성과 보상 체계도 만들겠습니다. 누가 일을 열심히 했고 성과를 냈는지 합리하지 못하는 조직에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직 운영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가시적인 새로운 제도를 제시하겠습니다. 동시에, 기둥 뒤에 숨어 일하지 않는 사람과 KBS에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물론 제도 변경 과정에서 노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양대 노조 모두 이러한 취지에는 공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KBS 모든 구성원을 소중히 여

기는 공통된 마음 아래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년 된 기수 문화를 폐지하겠습니다. 앞으로 KBS의 의사결정 체계에서 기수 정보는 삭제될 것입니다. 저부터 발령을 포함한 모든 인사에 있어 기수는 참고 대상으로도 하지 않겠습니다. 기수 정보를 삭제한다고 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연공서열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능력에 따른 인사와 성과에 따른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지금의 분위기는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올 봄 정기 인사에서부터 기수 문화를 넘어서는 과감한 발탁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선수가 되어, 함께 뛰어 봅시다.

사랑하는 KBS 가족 여러분. 지금 KBS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평론가가 아닌 선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누군가의 실패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보단, 동료로서 함께 뛰며 응원하고 존중하는 선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선수가 되어 함께 뛰어봅시다. 내년, 2024년 신년사에서 한해의 성과를 자축하고, 한 번 더 도약하자고 크게 외칠 수 있도록 저부터 선수가 되어 최선을 다해 뛰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뛰어봅시다, 감사합니다.

KBS 한국방송 사장 김기철

2023년 신년사 | 이사장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종합미디어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사장 남영진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이 상시화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는 31개월 동안 코로나19 특보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데 이어 앞으로 다가올 엔데믹을 준비하는 등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공공의 가치를 디지털 서비스로 확장하는 종합미디어로 도약해야 합니다. 글로벌 OTT·유튜브 콘텐츠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2049세대를 비롯한 수용자들의 니즈에 적극 대처해 미래 50년을 이끌어 나갈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내외 경기 위축과 지구촌 기후 변화, 한반도 긴장 고조, 세대·계층 간 갈등 심화 등 우리 사회가 접하고 있는 과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KBS가 '신뢰와 통합의 창'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종 매체의 범람 속에서 탄탄한 신뢰를 쌓는 동시에 크고 작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콘텐츠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도 미디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들께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12기 이사회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신년사 | 시청자위원장

2023 계묘년(癸卯年)에도 시청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시청자위원장 최경진

새해의 여명과 함께 건강하고 힘찬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작년은 국민 모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감내해야만 했던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가 그러했고 안타깝게도 대유행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아픔인 이태원 참사의 여파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KBS는 정론(正論)의 정신으로 진실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진상규명 보도는 우리 시청자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KBS가 지난 한 해 매우 우수한 방송콘텐츠로 국내외에서 수상도 많이 했고 우리 시청자들을 만족시켜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 그 소중한 역할에도 충실했음에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과 격려를 보냅니다. 시청자위원회도 좋은 방송을 위해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종종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치열한 논의도 오가곤 하지만, 이러한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오로지 시청자의 권익과 양질의 방송을 위한 애정 어린 비판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KBS가 이 격동의 시기에도 우리 사회의 가장 신뢰받는 소통(疏通)의 채널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충실히 담은 정보의 채널이자 사회통합의 채널인 KBS가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에 앞장서기를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사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한 2023 계묘년(癸卯年)을 맞이하면서 KBS를 사랑하는 시청자 국민과 KBS 구성원 모두에게 큰 복과 행운 그리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신년사 | 감사

KBS 미래 50년, 교토삼굴(狡兔三窟)의 지혜로 준비합시다



감사 박찬욱

KBS 가족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루하루 건강하고 늘 가슴설레는 일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공영방송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공자님이 말씀하신 지천명(知天命)에 해당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KBS는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지금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미디어 그룹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은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환경이 예상됩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로 생활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고, 회사의 경영상태도 녹록치 않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늘 기회와 함께 온다는 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영리한 토끼는 생존을 위해 3개의 굴을 판다고 합니다. KBS도 새로운 50년을 위해 *교토삼굴(狡兔三窟)의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올해는 KBS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첫해입니다. 글로벌 OTT와 뉴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콘텐츠로 경쟁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재난방송 등 공적 책무는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기만 한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웅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뛰듯이, 훗날 돌아켜봤을 때 지금이 앞으로

멋진 재도약을 위한 권토중래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연말에 받았던 신년 달력을 새로 펼쳤습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하니 조금은 설레는 기분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직장 문화도 바뀌고 있지만 기본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 사랑하는 KBS와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늘 행복한 미소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교토삼굴(狡兔三窟): '피있는 토끼는 굴을 세 개 파놓는다'는 뜻으로 교묘한 지혜로 위기를 피하거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

최초의 질문

〈최초의 질문〉은 KBS가 2023년 새해를 맞아 세계의 변화를 이끈 ‘질문’들의 탄생 배경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마련한 대담 프로그램이다. 오는 5일부터 3주간에 걸쳐 이정동 서울대 교수와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가 서로 묻고 답하며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1편 : 〈대질문의 시대〉

세계는 지금 전쟁,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 기후 위기, 양극화 등 요동치는 변화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생존법 찾기에 분주하다. 우리가 알던 질서와 정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지금 우리에게는 기존의 규범을 깨트리는 도전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세계정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다각도로 고민해본다.

▶ 1월 5일(목) 밤 10시 **KBS11**

2편 : 〈질문은 진화한다〉

어떤 질문은 실패로 끝나고 어떤 질문은 세상을 바꾼다. 혁신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질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난 그 어떤 질문도 최초의 질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의 첫 시도는 보잘 것 없고, 한 번에 완성되지도 않는다. 질문이 진화하면 최초의 질문이 된다. 질문의 진화를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1월 12일(목) 밤 10시 **KBS11**

3부 : 〈가슴 뛰는 질문을 던져라〉

미래를 내다보고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질문, 가슴 뛰는 질문이 있는 곳에 인재가 몰리고 있다. 도전적인 질문은 누가 던져야 하는가? 바로 리더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최초의 질문이 살아 숨 쉬게 하는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며, 한국 사회에 혁신이 싹트도록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질문이 곧 생존인 시대,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최초의 질문을 탐색해본다.

▶ 1월 19일(목) 밤 10시 **KBS11**이정동
서울대 교수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정덕현의 TV 읽기

〈KBS 드라마 스페셜 2022〉, 단막극의 가치

정덕현
문화평론가

최근 우연히 만난 나영석 PD는 프로그램 촬영차 멕시코에 갔다가 실감한 K-드라마의 확연히 달라진 위상에 대해 필자에게 얘기한 바 있다. 어느 카페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현지인들이 찾아와 출연자 중 한 명인 박서준을 알아보며 “요즘 K-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봤다”고 말했다는 것. 나영석 PD는 ‘K-드라마’라는 지칭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하나의 장르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절감했다고 했다.

K-드라마가 이미 그 위상을 확보한 현재, 이제 남은 중요한 과제는 이 흐름을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관건은 결국 ‘인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작가와 연출자 그리고 배우들이 등장해 이 흐름의 동력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는 것 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드라마 제작업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신진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살펴볼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매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무려 38년간이나 지상파 단막극의 명맥을 이어온 〈KBS 드라마 스페셜〉이다.

2022년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KBS 드라마 스페셜 2022〉에서는 단막극이어서 가능한 신선한 작품들이 방영됐다. 다양한 소재들이 다뤄졌지만 이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양극화나 가난, 코로나19 같은 현실 속에 놓여진 청년들의 이야기였다. 가장 먼저 전파를 탄 〈얼룩〉은 어찌다 잘 사는 후배의 빈 집에 들어가게 된 가난한 음대생과 그곳에 있던 피아노에서 비롯돼 벌어지는 비극을 그린 작품으로 청년들이 절감하는 양극화, 수저 계급 사회에 대한 처절한 토로가 담겼다. 피아노가 없어 이층침대 위에서 바로 눈앞의 천장에 피아노 건반을 그려놓고 연습하던 청년이 마침 그 위를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잡아 죽이고 거기 남겨진 얼룩을 보는 장면은 이 단막극이 가진 문제의식을 너무나 선명한 은유로 그려낸다. 〈방종〉이 SNS 시대에 이슈가 돈이 된다면 뭐든 하는 청춘들의 방종을 통해 그들이 처한 현실을 풍자적으로 그려냈다면, 〈열아홉 해달들〉은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춘들이 그들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과정을 먹먹한 멜로로 포착해냈다. 한편 〈낯선 계절에 만나〉 같은 작품은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을 격리시설에서 벽 하나를 두고 사랑을 싹틔우는 남녀의 달달한 이야기로 풀어내기도 했다.

〈KBS 드라마 스페셜 2022〉를 통해 선보인 작품들은 그 소재나 서사가 단막극이라는 짧은 형식에 최적화돼 있는데, 짧게는 6부작에서부터 길게는 12부, 16부작이 대세로 자리 잡은 드라마 제작방식에서 왜 단막극이 여전히 필요한가를 예들려 말해준다. 예를 들어 〈낯선 계절에 만나〉 같은 작품은 소재 자체가 작아 단막극이 아니면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드라마지만, 단막극이어서 더욱 담백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또 단막극은 그 특성상 이제 주목받는 신인 배우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얼룩〉의 차학연, 〈열아홉 해달들〉의 신은수, 〈낯선 계절에 만나〉의 한지은과 김건우, 〈아쉬탕가를 아시나요〉의 주종혁, 배윤경 같은 배우들은 물론 타 작품들에서도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이들이지만 단막극 주인공 역할을 통해서 보다 큰 가능성을 확연히 보여줬다.

물론 〈KBS 드라마 스페셜〉이 동시간대에 방영되는 타사의 장편 드라마들과 경쟁해서 시청률 같은 수치적인 성취를 가져가긴 어렵다. 하지만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이 단막극의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작가와 PD, 배우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건 그 어떤 가치보다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K-드라마의 위상을 지속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이러한 새로운 얼굴들이기 때문이다.



KBS 목포방송국

지역 시청자위원이 말한다

가장 지역다운 지역방송국 목포 KBS



누구나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도래할수록 정보의 왜곡과 혐오의 이미지는 만연해지고 정보 접근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 중심으로의 환경변화는 대중매체처럼 다수를 끌어안기 위한 콘텐츠가 아닌 특정 집단을 콘텐츠 소비자로 만든다 보니 때로는 게이트키퍼가 없는 걸러지지 않은 '날 것'의 콘텐츠를 반복 노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채널·다매체의 무한 경쟁과 함께 우리나라의 지역방송국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오히려 다채널·다매체의 시대에서 방송의 상업화가 가속화될수록 공적 가치를 제고해야 할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본다.

그러면 지역방송 본연의 역할은 무엇일까? 사실 지역민들이 가장 알고 싶고 궁금해하는 것은 본인

들의 생활권역 내에서 벌어지는 소식이다. 또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기보다는 지역 방송의 역할에 부합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즉,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점에서 이러한 역할에 충실한 KBS 목포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며 인터뷰를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자에게 전달하는 라디오 시사 종합 프로그램인 <출발 서해안 시대>이다.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8시 58분까지, 특히 출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의 소식과 현안에 대한 의견 및 해설을 아낌없이 보내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시사와 인물·문화·예술 등을 주로 당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감나게 전달해 준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 보니 해당 방송에 대한 애착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필자도 과거 자주 출연하다 보니 어떤 프로그램보다 애착이 많이 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점에서 <출발 서해안 시대>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은 소통과 의견 반영에 유리함이 있다. 청취자들은 늘 방송과 함께 할 수 있고 방송국은 영상 송출의 부담 없이 기동력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 라디오는 일상의 일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라디오는 보이지 않지만, 더 유연하고 편안한 소통의 가능성이 크다. 시민과 지역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범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도 지역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가치가 있다. 25년 이상 진행을 맡고 있어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빠른 정윤심 PD의 매끄러운 진행은 이 프로그램이 많은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 고품질 콘텐츠로 필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하는 목포 KBS 기획취재 <근대 역사 100년 그들의 증언>이다. 국가 역사 위주의 정사나 큰 인물과 사건 중심의 국내 역사 기록방식에 가려진 지역 인물들의 경험과 에피소드, 그리고 역사의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해 방송했던 프로그램이다. 일제하, 한국전쟁,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지역을 위해 묵묵히 역사의 현장에 몸을 던진 지역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인물들의 입에서 듣는 독특하고 실감나는 경험의 역사는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이자 골동품이다. 후손들에게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텍스트 영상으로 앞으로도 오랫동안 활용될 거라는 점에서 KBS 목포방송국을 사랑하는 시청자위원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늘 지역 시청자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위상을 제고시키며 궁극적으로 지역방송의 지역성 수행에도 부응하는 노력을 오늘도 아낌없이 해주는 KBS 목포방송국의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지역방송국에 근무하는 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KBS의 경영 여건을 기대한다.



정기영
목포방송국 시청자위원장 / 세한대학교 교수

아시나요? 보석 같은 지역 프로그램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의 모든 것을 다루는 숏폼 다큐멘터리



“저게 무슨 일이고?” 20여 년간 촬영 현장을 누빈 사람에게도 생소한 광경. 바로 부산의 변화가 중심지에서 한정판 술을 사기 위해 MZ세대가 ‘오픈런’을 하는 모습이었다. <월간 부산>은 이렇게 ‘지금’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기한 현상을 살펴보자는 데서 시작했다.

이런 취지에서 기획돼 지난 6월 첫 편으로 방송된 ‘MZ세대 술판이 바뀐다’는 한국의 집단주의적이고 획일적인 술 문화를 개인의 다양하고 고유한 취향의 술 문화로 변화시키는 MZ세대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담아냈는데, 본 방송이 많은 관심을 받은 것뿐 아니라 유튜브로도 조회수 33만 회를 기록했다.

<월간 부산>은 부산총국의 젊은 PD들이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목할 만한 현상, 장소, 인물을 깊이 있으면서도 젊은 감각으로 담아내는 3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다.

부산의 매력적인 먹거리를 다룬 ‘길 위의 정식’ 편부터 부산 프로축구단의 2부리그 생존기를 다룬 ‘빌드업’ 편, 해양도시 부산의 바다 쓰레기 문제를 감각적으로 다룬 ‘버리고 줍고 즐기고’ 편까지 제작진이 다양한 장르, 실험적인 촬영을 거침없이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영우 신드롬에서 비롯된 부산 자폐 청년들의 매력적인 일상을 담은 ‘자폐 청춘 일지’는 영상과 구성면에서 탁월한 결과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복잡한 세상 속 점점 무거워지는 이야기 대신 짧고 깊이 있게 부산의 모든 것을 다루는 숏폼 다큐멘터리 <월간 부산>.

제작진은 “<월간 부산>을 보면 생동감 있는 도시 부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자부한다”며,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40분(부산·양산권) KBS



KBS 경영진·계열사 사장단, 현충원 참배

2023년 새해를 맞아 김의철 사장을 비롯한 KBS 경영진과 계열사 사장단이 1월 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김 사장은 현충탑에 분향한 뒤 방명록에 ‘공영방송 50년! 가장 신뢰받는 KBS!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KBSKLT(외국인을 위한 KBS 한국어능력시험) IBT 매월 정기 시험 시행



KBS 한국어진흥원(이하 한국어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KBSKLT(외국인을 위한 KBS 한국어능력시험) IBT 정기 시험이 2023년 1월부터 매월 시행된다.
한국어진흥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IBT 환경의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일부 대학의 입학 및 졸업 시험에 적용해 단체 비정기 시험으로 총 5회 진행했다.
박현우 한국어진흥원 원장은 “그동안 단체 신청 위주로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던 KBSKLT가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이 필요한 응시자들에게 더 많은 시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UHD 무선설비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국내 표준 채택

12월 7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주최한 제102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KBS가 제안한 ‘지상파 UHD 무선설비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이 국내 표준으로 최종 채택됐다.
‘지상파 UHD 무선설비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은 지상파 UHD 송중계가 준수해야 하는 7개 무선국 검사 항목에 대한 명확한 측정 방법을 정하는 표준이다. 오종혁 KBS 방송장비인증센터 팀장은 “기술본부 실무진이 위원으로 참여해 완성한 표준이 국내 표준으로 채택됨으로써 KBS의 앞선 기술력을 알린 좋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TTA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시험인증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정기관으로 방송기술위원회(TC8그룹) 의장은 김정덕 KBS 미디어기술연구소장이 맡고 있다.

제22대 아나운서 협회장에 박태원 사우



제22대 아나운서 협회장으로 박태원 사우가 당선됐다.
2004년 공채 30기로 입사한 신임 박태원 아나운서 협회장은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협회장 선거에서 78%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박 협회장은 “협회원 간 소통과 교류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알기 쉬운 미디어 이슈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유건식 제작기획2부/언론학 박사
요즘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많은 시청자들이 청각 장애인이 아님에도 자막을 틀어 놓고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젊은층(Z세대)이 그렇다.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서비스는 넷플릭스가 적극적으로 도입했는데, OTT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사가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유용하고, 잘 모르는 상황을 지문으로 안내해 주니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배리어 프리 서비스란?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 따르면 배리어 프리는 원래 건축 용어로 장애인을 위해 계단 같은 ‘장벽을 없애(Barrier + Free)’고 슬로프나 엘리베이터,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콘텐츠에 적용한 것이 배리어 프리 서비스로, 영상과 소리로 이루어진 드라마나 영화를 즐기도록 음성해설과 배리어 프리 자막을 넣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넷플릭스는 음성의 경우 대사 이외에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 설명’과 대사 이외에 배역 이름, 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말투 따위를 지시하거나 서술

하는 지문을 포함한 ‘청각 장애인용 자막’을 서비스하고 있다. 디즈니+는 넷플릭스의 ‘자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웨이브와 티빙도 일부 콘텐츠에 자막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방송과 OTT의 배리어 프리 서비스
KBS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폐쇄자막 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20일부터 한국수어방송 분량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시켰다.
‘폐쇄자막(closed caption)’이란 청각 장애인을 위해 TV 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나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글로 바꾸어 자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별도의 수신기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OTT에서는 별도의 수신기 없이 옵션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방송보다 편의성이 높다. ‘화면해설방송’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장면의 전환,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대사 없이 처리되는 영상 등을 해설하는 서비스다. 대체로 재방송할 때 화면해설방송을 같이 송출하지만, 본방송에서 화면해설방송을 송출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사전에 화면해설방송을 제작하여 처음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한국수어방송’은 주로 뉴스나 재난방송 시에 청각 장애인을 위해 제공된다. 2017년부터는 별도 수

신기를 통해 스마트수어방송도 이루어지고 있다. 수어 영상은 인터넷으로 제공돼 수신기에서 수어 영상의 표시, 크기,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OTT들은 수어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배리어 프리 서비스 확대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증가하는 추세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2억 2천만 명을 상대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로컬을 중시하면서 자막과 더빙을 포함해 배리어 프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33개국 언어의 자막이나 화면해설, 더 나아가 더빙까지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OTT 서비스 중 가장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얻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웨이브도 2021년 12월부터 자막을 제공하기 시작해 약 100개 타이틀의 500여 편에 제공하고 있고, 티빙도 2022년 9월부터 배리어프리 한글 자막 서비스를 적용해 약 120개 타이틀의 1,500여 편에서 자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고서에는 국내 OTT의 배리어 프리 활성화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K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웨이브에 제공해 배리어 프리 서비스를 확장한다면 공영방송 본연의 공적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두워야 보인다, 무서운 진실이… 영화 <올빼미>



홍길동도 아니요, 말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사실을 사실이라 말할 수 없다. 똑똑히 보고 들은 바를 감추어야 하는 이유는 진실을 목격한 이가 다른 아닌 맹인이기 때문이다. 영화 <올빼미>는 조선의

16대 왕 인조가 아들 소현세자의 죽음과 관련돼 있다는 소현세자 독살설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상상력을 보낸다. 만일 유일한 목격자가 맹인이라면 어떻게 될까?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설정이지만, 영화는 주인공이 '주맹증'을 가진 침술사라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낯선 단어가 어렵다면, 보다 친숙한 단어인 '야맹증'을 뒤집어 생각해보자. 야맹증이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분간하기 힘든 증상을 일컫는다면 주맹증은 그 반대다. 어둠 속에서 더 또렷이 본다. 영화적 과장을 보탠 묘사겠지만, 주인공 경수는 밤에만 희미하게 앞을 본다. 그러다 봐서는 안 될 것까지 본다.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소현

세자가 석연찮게 죽음을 맞는 순간이다.

말하거나 보지 못하는 목격자라는 설정은 이미 여러 영화에서 쓰인 바 있지만, <올빼미>의 안태진 감독은 여기에 자신만의 야심을 보낸다. 권력과 진실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다는 의도다. 단순히 긴장감을 더하려 장애티를 불러들인 여러 작품과 달리 경수의 '주맹증'은 보다 상징적이다. 아무리 청나라에 무릎 꿇은 굴욕의 왕이라 해도 임금에 임금인 법. 용상 뒤 일월오봉도가 상징하듯, 나라의 태양으로 떠받들어진 왕의 권세는 그 휘황함으로 주위뿐 아니라 인조 자신의 눈까지 가린다. 이에 흔들리지 않는 건 오직 밤에 보는 경수뿐이다. 참된 진실은 권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한밤중에만 목격될 수 있으며, 언젠가는 순리대로 가짜 태양을 물리치고야 말리라는 비유가 여러 장면에서 읽힌다.

사망 당시 "온몸이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 일곱 구멍에서 선혈이 흘러나왔다"는 스무 살의 소현세자. 실록은 그를 두고 마치 약물에 중독돼 죽은 사람 같았다고 적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게 뿌리 깊은 소현세자 독살설이다. 이미 여러 연구와 창작물이 나와 있어 싫증이 나기 쉬운 소재이지만, 감독은 아이디어 하나에 의존하는 실수 대신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을 전개하며 긴장감을 유지한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윤리적 질문도 던진다. 평론



강푸른 기자의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가 듀나의 말처럼, 우리에게도 결코 남 일이 될 수 없는 이야기다.

안태진 감독이 지천명의 나이에 내놓은 데뷔작 <올빼미>는 첫 연출작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완성도를 유지한다. <왕의 남자> 조연출 출신으로, 시나리오 단계부터 이준익 감독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영화의 결이 한층 더 이해되기도 한다. 기존의 웃음기를 싹 지우고 신들린 듯한 연기를 보여주는 유해진과, 이에 밀리지 않는 내공을 보여주는 류준열의 연기 합도 훌륭하다. 다만 영화 내내 '거두(去頭)'하였으니 '절미(截尾)'하지 못한 결말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취향에 따라 이 결말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겠다. 깍소리 한번 못 내고 스러진 민초들에게, 상상으로나마 통쾌함을 안기고 싶었던 감독의 선물이라고 생각해본다.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세이프K



김민철 재난미디어센터 기자

아래는 서울의 한 구청이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한 '재난안전 인식도 검사' 문제 중 일부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생활안전 분야에 걸쳐 관련 상식을 묻는 문제들인데,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 번 풀어보시죠.

- 1 발가락에 동상 증상이 있으면, 손으로 비벼 천천히 체온을 높여준다. (O, X)
- 2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 그늘에서 체온을 천천히 내려준다. (O, X)
- 3 실내 화재로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화장실로 대피한다. (O, X)
- 4 여객선에서 바다에 빠지면, 지속적으로 수영을 하며 체온을 유지한다. (O, X)
- 5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도 생선을 구웠을 경우 환기를 한다. (O, X)
- 6 심폐소생술은 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O, X)
- 7 지진으로 정전시 라이터를 이용하여 탈출구를 확인한다. (O, X)
- 8 부탄가스를 안전하게 폐기하려면 망치로 쳐 구멍을 내어 가스를 제거한 후 버린다. (O, X)
- 9 한파 예보 시 가정에서는 수도 계량기 보호함 안을 깨끗이 비우고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로 틈새를 막는다. (O, X)
- 10 폭염 시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같은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응급처치로 몸에 짝 끼는 옷을 풀어주고, 천천히 체온을 낮춘다. (O, X)

<재난안전 자가진단> 한 번 해보시죠!

정답과 해설은 맨 뒤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열 문제를 다 맞히셨다면 대단하신 겁니다. 사실 이 문제들은 모두 제가 틀린 문제들입니다. 재난미디어센터에서 탐장으로 일하면서 재난 관련 상식을 꽤 많이 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누구나 위급한 순간에 알고 있어야 할 매우 일반적인 상식조차 아직도 모르는 게 많더군요.

재난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임에도, 평소엔 그 누구도 재난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재난이 닥쳐오면 재난 정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죠. 하지만 그때에야 뭘 알아보려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평소 미리 재난에 관한 각종 상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의 구성원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현행 법령이나 시규 등 여러 규범은 KBS의 구성원들에게 직종과 직무를 막론하고 결코 재난과 무관할 수 없고, 상당 수준의 재난 정보와 상식을 갖춰야 하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용한 재난 정보 콘텐츠를 적기에 제작·방송·유통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한편으로 대부분의 재난은 사람들이 충분한 예방과 대비를 하도록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물론, 과거 수많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에서 보듯 재난은 주 52시간제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을 정해놓지도 않았으며, 주말과 야간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일쏘

이런 '재난안전 자가진단' 퀴즈를 권유하며 사소한 자극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난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데, 우리의 대응은 충분치 못한 만큼, 재난이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적기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길은 평소 지속적인 리마인드와 학습, 훈련밖에 없으니까요.

- 1 X 동상 부위를 비비면 피부나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므로, 체온과 비슷한 38℃ 정도의 따뜻한 물에 30분 가량 담가야 한다.
- 2 X 열사병인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 상황으로, 최대한 빨리 차가운 수건으로 몸을 닦아 주거나 찬물을 부어 체온을 낮춰야 한다.
- 3 X 화장실로 대피할 경우 고립되어 위험할 수 있다.
- 4 X 체온 유지와 체력 소모로 수영 등 불필요한 동작은 하지 않는 게 좋다.
- 5 O 외부 미세먼지보다 생선을 구웠을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더 해로우므로 환기를 하는 게 좋다.
- 6 X 심폐소생술은 숨을 쉬거나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계속 해야 한다.
- 7 X 지진으로 정전시 가스가 켜질 수 있어, 라이터를 켜면 안 된다.
- 8 X 구멍을 낼 때 망치로 치면 안되고, 송곳으로 돌려 구멍을 낸다.
- 9 X 한파 예보 시 수도 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스티로폼, 헌 옷 등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 찬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0 O 열사병 증상이 있는 경우는 서늘한 곳에서 천천히 체온을 낮춰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無理하게 물을 마시게 하면 안 된다.

뇌 가 구 해 줄 게**뇌 과학 코믹 수사극**

〈두뇌공조〉는 뇌신경 과학자 신하루(정용화 분)와 베테랑 형사 금명세(차태현 분)가 공조 수사를 통해 희귀 뇌 질환에 얽힌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코믹 수사극이다. 지난 1, 2회 방송에서는 파킨슨병을 앓던 유명 기타리스트가 무대 위에서 살해되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그려졌다.

기존의 의학 드라마에서 간혹 등장했던 '뇌 과학'이라는 소재를 범죄 수사극과 접목한 이색적인 스토리와 뇌신경 과학자와 형사의 관계로 만난 두 남자의 예측 불가 이야기 전개, 그리고 짜임새와 속도감 있는 연출과 영상미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고, 신하루와 금명세를 둘러싼 주요 인물들로 나오는 박선영, 예지원, 정동환, 우현 등 믿고 보는 명품 배우들의 연기력은 극에 입체감을 더해주며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앞으로의 전개에서는 정용화와 차태현의 공조 수사가 본격화되고,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 유쾌하고 재미있게 그려질 예정이어서 깊어져 가는 겨울밤 시청자들에게 더욱 짜릿한 긴장감과 웃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악의로 민나 정의를 실현하는

두뇌공조▶ 매주 월~화요일 밤 9시 50분 **KBS2**